

## 5) 공익수호운동

절초동맹에서 보듯이 농민회의 역할은 좁은 뜻의 지주·소작관계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농민회는 지역사회의 공공활동의 한 공간이었다. 일정한 지역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역할을 가지고 부단히 만나는 농촌사회의 성격상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는 조직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농민회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공사(公事)를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록 농민회가 회칙과 회원, 정해진 절차 등을 가진 조직이었다 하더라도 농민회의 모임과 여타의 모임이 항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농민회는 그 자체로서, 또는 소속된 간부와 회원들의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의 대소사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농민회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서면에서는 농민회의 간부가 면의 공사를 주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서는 농민회 자체가 주동이 되어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인 단연단주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농민회 간부들은 1924년부터 시작된 공립보통학교 기성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특히 군당국에서 면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학교의 위치를 선정한 데 대해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당국의 무리한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sup>1)</sup> 서면의 경우 농민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운동으로서는 산업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간상인의 수탈을 배제하여 농민의 경제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물품의 공동판매를 추진하는 조직이었는데, 100여 명의 회원을 포섭하였고 김기수·박병두 등이 중심이 되었다.<sup>2)</sup>

각 면 농민회는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교육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노동야학을 세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순천농민연합회에서는 순천읍에 장서 700여 권을 소장한 '민중도서관'을 개설하기도 했다.<sup>3)</sup>

이상에서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와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순천 농민운동은 3·1운동 이후 고양된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정의 실현하기 위한 민중운동이었다. 또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첫째, 순천 농민운동은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적 민족주의와 민족적 삶을 개선하는 운동의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그것은 일제 통치의 근간인 지주제의 동요를 가져왔다. 그러나 순천 농민운동의 이러한 여러 측면이 반드시 서로 조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농민운동이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세력 사이의 갈등을 표면화하는 한 그러한 갈등을 무마하는 실력양성론적 민족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 중 어느 하나를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한 가지 틀로 경솔히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한 시기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의 한 시기는 대체로 완전한 가(可)도 완전한 부(否)도 아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거부될 필요도 수락될 필요도 없는 여러 사실과 동기와 가능성의 집적일 뿐이다.”<sup>4)</sup> 이러한 자세로 한 지방의 지나간 시기를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에 대한 편견 없는 해석이다.

1) 『동아일보』 1923. 10. 28 · 1924. 11. 28 · 1925. 1. 25 · 1925. 5. 20.

2) 『동아일보』 1926. 1. 2.

3) 『동아일보』 1925. 10. 19.

4) 金禹昌, 「아침을 열며—역사의 재평가」, 『동아일보』 1995. 4. 30.

참고자료

동아일보.

大邱覆審法院 1925년 刑控 第137號 판결.

光州地方法院 1934년 刑公 第54號 판결; 1935년 刑公 第2·3號 판결.

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1924년 民第749號 판결; 1924년 民第1147·48號 판결; 1924년 豫第8號 결정;  
1924년 刑公 第689號 판결; 1934년 民第276號 판결.

金森襄作, 「조선농민조합사-1920년대 진주·순천을 중심으로」, 『칙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金仁杰·韓相權 편, 『朝鮮時代 社會史研究 史料叢書』 2권, 보경문화사, 1986.

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한국 농민운동-전라남도 순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抗日農民運動研究』, 동녘, 1984.

馬淵貞利,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통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梶村秀樹, 「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順天文化院, 『順天昇州郷土誌』, 1975.

李喆雨, 「인류학과 사회사의 접점에서 본 법」, 『법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全羅南道, 『小作慣行調査書』, 1923.

全羅南道, 『全南の米』, 1932.

鄭勝模, 「書院, 祀宇 및 郷校組織과 地域社會體系(1)」, 『泰東古典研究』 3, 1987.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한길사, 1978.

朝鮮總督府, 『農山漁村振興功積者名監』, 1937.

하원호,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농업·농민론」,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편, 『聚禮 柳氏家の 생활일기』 상·하, 199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편,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名簿』, 1985.

韓國史料研究所 편, 『朝鮮統治史料』, 東京, 1970.